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제70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 참석 및 의제 대응

과제명

- 2019 WHO 주요 이슈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연구

출장기간

- 2019.10.06.(일) ~2019.10.12.(토)

출장국가(도시)

- 필리핀 마닐라

출장자

- 전진아 연구위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10.06.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도착(저녁 비행기)
2019.10.07. ~2019. 10.11.	필리핀 마닐라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제70차 지역총회 참석 및 의제 대응
2019.10.11.	인천			필리핀 마닐라 출발
2019.10.12.	인천			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1일차
일 시	2019.10.07. 09:00~18:00
장 소	필리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지역총회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인력 7인, 전진아 연구위원
<p>1. address by the outgoing chairperson</p> <p>: 제69차 서태평양 지역총회 부의장을 맡은 싱가포르 보건장관 Dr. Lam Pin Min이 전임 의장 연설을 진행함. 전임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서태평양지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사항들과 더불어 지역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 문제들을 언급하며, 2018년 선출된 Dr. Takeshi Kasai 신임 지역처장이 'For the Future' 백서에서 목표로 제시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서태평양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p> <p>: 전임 부의장은 지난 제69차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채택한 e-health 지역행동계획, 병원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역 행동 프레임워크, 재활을 위한 지역행동계획들을 언급하였음. 부의장은 지난해에 채택한 지역 행동 계획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가 계획 개발, 지역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건시스템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함.</p> <p>2. Election of the Chairperson, vice-chairperson and rapporteurs</p> <p>: 필리핀과 호주의 추천을 받아 한국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음.</p> <p>: 중국과 쿡 제도의 추천을 받아 브루나이 다루살렘의 Dr. Mohammad Isham Jaafar 보건장관이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p> <p>: Rapporteur는 파푸아뉴기니와 베트남의 추천을 받아 영어 서기로 호주 보건부의 Ms Emma Jeanette Carters가 선출되었으며, 피지와 라오스의 추천을 받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보건부의 Dr. Mereh도며 Mervin이 불어 서기로 선출되었음.</p> <p>3. Adoption of the agenda</p> <p>: 회원국의 이견없이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의제가 채택되었음.</p> <p>4. Address by the Regional Director</p> <p>: Dr. Kasai는 감염성질환, 보건안보, 만성질환, 자원조달 등 분야에서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들을 언급함과 동시에 여전히 서태평양 지역이 경험하는 보건 이슈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함. 지역처장은 "For the Future" 백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사람, 가족,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회원국과 WPRO 간, 회원국 간, 그 외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서태평양지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힘.</p> <p>: 회원국은 지역처장이 발표한 "For the Future" 백서에서 제시한 4가지 우선순위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보건 이슈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5년 동안 이 영역들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각국은 감염성질환, 비감염성 질환, 보건안보 등 보건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계획을 개발하는 등 UHC 및 SDG를 달성하기 위한 자국의 노력을 회원</p>	

국과 공유하였음(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회원국은 신임처장인 Dr. Kasai가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각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각국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음(베트남, 한국, 키리바시, 중국 등). 지역이 경험하는 보건 이슈들은 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차원의 보건이슈이고 보건 외 환경, 노동, 빈곤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보다 다영역적 접근을 강화하여, 지역 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필리핀, 호주, 한국, 몽골 등). 마지막으로 회원국은 각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 효율성, 양질의 안전한 서비스, 가격접근성이 높은 서비스가 지역에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말레이시아, 피지 등).

: 회원국 발언에 대해 지역처장은 회원국들이 보여준 “For the Future” 백서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다영역적 접근을 강화하여 보다 회원국 중심의 지원 활동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힘. 또한 각 회원국이 관련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백서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함.

: 제70차 서태평양 지역총회는 회원국의 이견없이 “For the future” white paper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음

5. Address by the DG

: Dr. Tedros 사무총장은 이번 지역총회에 제시된 “For the Future” 백서에 제시되어있는 4가지 주요 이슈인 항생제 내성과 보건안보, 만성질환과 고령화, 기후변화와 환경,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이 백서는 글로벌 차원의 WHO 행동 프레임워크인 제13차 GPW와도 잘 부합한다고 언급함. 백서에서 제시한 이슈들을 서태평양 지역의 다수의 국가가 경험하고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응방식과 대응 역량도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사무총장은 서태평양 지역이 처해있는 주요 도전과제로 일차 보건의료체계 강화, 흡연과 아동비만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후 변화를 언급하였음. 마지막으로 사무총장은 제13차 GPW에 제시된 것처럼 회원국을 중심에 놓고 각 회원국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지역사무소에 촉구하였음.

6. Programme Budget 2018-2019

: 사무국은 지난 2년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 것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되었다고 보고함.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내 성(gender) 및 지리적 대표성이 향상되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음.

: 회원국은 99%의 예산 집행률을 보인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으며(호주, 한국),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사항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였음(호주, 한국). 발언국들은 예산 집행에서의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언급하였음(호주, 미국).

: 회원국은 지역사무소 내 성(Gender) 및 지리적 대표성이 향상된 것에 대해 사무소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사무국에 촉구하였음(호주, 미국)

: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발적 기여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하였으며(일본, 파푸아뉴기니, 중국 등), 이것이 WHO의 자원동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함(일본). 회원국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지역의 자원동원 역량 강화 촉구를 사무국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함(중국, 필리핀 등)

7. Programme budget 2020-2021
 : 2020-2021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지난 2년에 비해 서태평양지역 예산이 10% 정도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싱가포르), 이 예산의 증가가 대부분 국가 사무소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3차 GPW에서 강조하는 국가 중심의 지원 원칙이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언급함(피지, 호주)
 : 회원국은 2020-2021 프로그램 예산이 2018-2019와 같이 성공적인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역사무소의 책임성이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측정가능한 성과들을 중간보고와 결산보고 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미국, 호주)

②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2일차
일 시	2019.10.08. 09:00~18:00
장 소	필리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지역총회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인력 7인, 전진아 연구위원

1. Address by the incoming Chairperson
 :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신임의장인 한국의 박능후 장관은 담배통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보건안보, 건강유해 식품 마케팅으로부터 아동보호,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기후변화 등 이번 지역총회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서태평양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 보건 이슈라고 강조함. 신임의장은 이번총회에서 보건이슈 뿐 아니라 지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예산, 제13차 GPW에 따른 조직 전환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의 각 회원국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이에 대응해온 사례들을 공유하여 이번 총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그리고 신임의장은 2020년 제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필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한 UHC 달성과 관련한 사이드 미팅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함.

2.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harmful impact of food marketing
 : 회원국은 아동이 마케팅에 취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비만 문제를 언급하며, 자국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건강유해 식품 마케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관련한 지역행동 프레임워크를 환영하였음(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 회원국은 현재 식품 마케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이행하고 있는 모유대체 식품 활용에 대한 규제, 건강유해 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식품에 포함된 성분 표시, 당류섭취 제한, 학교 근처 그린존 설정 등의 제도들을 공유하였음(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등).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식품 마케팅과 관련하여 식품 산업 뿐 아니라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미디어 매체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싱가포르, 브루나이, 홍콩, 뉴질랜드), 식품 및 식품에 대한 마케팅은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국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영역적 접근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미국, 호주, 피지). 회원국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제도 간 차이가 있고, 식품 마케팅의 유해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WPRO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말레이시아 등)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험을 공유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음. 마케팅을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이번 지역행동계획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고 밝힘. 사무국은 각 국가가 대응에 초점을 두는 식품의 유형(예. 당류, 모유대체식품 등)이 있을 것이며, 정책의 주 대상(예. 학령기 아동, 신생아 등)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 사무국은 각 국가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

여 각 국이 초점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WT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더불어 보건과 농식품 분야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서태평양 지역총회는 식품마케팅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행동계획 채택에 대한 결의안을 회원국의 이견없이 채택하였음.

3. Panel discussion on ageing and health

: 고령화와 건강과 관련하여, 패널 논의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피지, 필리핀이 자국의 고령화 현황 및 대응방안들을 공유하였음.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화는 보건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왔다는 점을 밝힘. 싱가포르의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노인뿐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서 건강증진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영역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힘. 베트남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인력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관한 국가 계획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 중국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노인 특화된 프로그램, 호스피스 체계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건강 노화에 장애 요소로 작동되는 인력, 의료비용,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피지와 필리핀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밝히며, 미리 준비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경험들을 고려하고, 국제 기구들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고령화와 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 회원국은 고령화와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자국의 경험들을 소개하였으며(일본, 한국 등)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센터를 소개하고 한국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소개하였음.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책과 사업들이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라고 언급함(파푸아뉴기니, 일본, 한국). 회원국들은 패널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령화 문제는 보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영역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정책 및 제도 개선 역시 보건을 포함한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피지, 한국, 몽골 등). 또한 회원국은 고령친화적인 사회와 환경은 장애인, 아동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친화적인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함(일본). 마지막으로 회원국은 새로운 지역행동계획이 회원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구성되기를 기대하였으며(일본, 한국), 지역행동계획에는 고령화와 높은 연관이 있는 치매가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일본, 한국)

: 서태평양 지역총회는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지역행동 계획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회원국의 이견없이 채택하였음.

4. Tobacco control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 회원국은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만성질환 관리에의 위험성과 더불어(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청소년 흡연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베트남, 호주). 또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담배가 거래되는 등 판매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브루나이 등)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담배규제기본협약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싱가포르, 홍콩 등). 회원국은 자국의 흡연율을 공유하고 공공장소 금연, 담배 패키징 등 금연 정책들을 공유하였음(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등). 또한 회원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열담배나 전자식 니코틴 전달체와 같은 새로운 담배제품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한국, 필리핀 등), 연구 및 개발, 중재, 규제 정책 등의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총회에 제출된 지역 행동 계획은 새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회원국이 금연 정책을 구성하고 이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힘

(호주, 한국, 파푸아뉴기니 등). 마지막으로 회원국은 WHO가 흡연 문제에 대한 책임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Tobacco Free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사무국에 요청함(필리핀, 피지, 브루나이)

: 서태평양지역총회는 담배규제에 대한 지역행동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회원국의 이견없이 채택하였음.

③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3일차
일 시	2019.10.09. 09:00~18:00
장 소	필리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지역총회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인력 7인, 전진아 연구위원

1. 항생제 내성

: 회원국은 항생제 내성이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에 제출된 항생제 내성에 관한 지역 행동 프레임워크를 환영하였음. 회원국은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등 자국의 경험들을 공유하였음(피지, 싱가포르, 등). 회원국들은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산림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뿐 아니라 예방접종 및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단위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호주, 필리핀, 일본 등). 또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쉽게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영역적, 다차원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한국, 뉴질랜드등). 또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인력 대상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음(나우루 등).

: 한국은 AMR reference and one health research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 WHO 본부 및 지역사무소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2020년 3분기에 스웨덴과 공동주최로 제3차 항생제 내성 감시 WHO 회원국 고위급 기술 미팅을 개최한다는 사실도 공유하였음.

④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4일차
일 시	2019.10.10. 09:00~18:00
장 소	필리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지역총회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인력 7인, 전진아 연구위원

1 Noncommunicable diseases asnd mental health, Action plan on healthy newborn infants

: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영유아와 모성사망과 관련한 회원국의 대응 사례와 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대응 경험이 공유되었음. 회원국은 만성질환, 정신건강, 영유아와 모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특히 빈곤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보건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말레이시아, 라오스, 피지)

: 구체적으로 회원국은 만성질환 유병률 현황,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였음(라오스, 호주, 중국, 몽골, 일본, 한국 등). 특히 호주의 경우 자궁경부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은 보건시스템 강화와 보건인력 양성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회원국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국가 정신건강 계획을 수립한 경험들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라오스, 중국 등). 회원국은 정신건강서비스가 일차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스트레스 관리,

위기 및 장기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캄보디아, 중국 등). 한국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경험들과 트라우마 체계 확대 계획을 회원국과 공유하였음.

: 회원국은 영유아와 모성 사망과 관련하여 모유은행 설립(말레이시아), 캥거루 케어 모델(라오스), EENC (중국, 파푸아뉴기니)와 같이 각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였음

2. Coordination of the work of the World Health assembly, the Executive Board and the Regional Committee

: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는 제71차 지역총회 의제, 제13차 GPW의 성과 측정에 관한 의제를 검토 하였음. 제71차 지역총회 의제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으며 (한국, 필리핀 등), 추가적으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환 및 예방접종에 관한 의제를 차기 지역총회 의 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몽골,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호주, 브루나이)

: 지역총회에 발표된 제13차 GPW의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가 결과 중심으로 투명하게 구성되어가고 있다 는 점에 회원국은 감사를 표하였음. 국가 단위에서의 WHO 활동이 강화되는 것에 동의하나 국가 사무 소의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지가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 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미국). 또한 회원국은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미국), 지역사무소와 본부 간 역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 줄 것을 사무 국에 요청함(호주)

⑤	제70차 서태평양지역총회 5일차
일 시	2019.10.11. 09:00~12:00
장 소	필리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지역총회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 담당인력 7인, 전진아 연구위원

1 climate change, environment and health

: 회원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Dengue 등 벡터매개 질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싱가포르, 중국 등), 각 국 이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 경험들을 공유하였음(싱가포르, 통가, 베트남, 중국, 피지 등).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는 보건 이슈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이슈임을 강조하고(중국, 말레이시아 등), 보건체계 개선, 보건인력 교육, 보건의료시설 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 회원국은 그동안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고, 이번 총회에서 Dr. Kasai가 제시한 'For the Future'백서에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 보건이슈로 포함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지속적인 WHO의 리더십 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싱가포르, 통가, 한국 등).

: 한국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GDSO를 설치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또한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WHO가 IAEA와의 협력 하에 이 문제 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하였음. 또한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일본은 한국의 발언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국제 규칙에 따른 것이며, IAEA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힘. 오염수의 정수(?) 작업이 진행중이며, 일본은 자국민 외에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 Special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Research Training in Human Reproduction: Membership of the Policy and Coordination Committee

: 재생산 관련 연구 개발 및 교육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의 관리기관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멤버로 3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회원국으로 일본이 선출되었으며, 회원국의 반대없이 의제가 통과되었음.

3. Time and Place of the Seventy-first and Seventy-second sess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 제71차 서태평양지역총회는 일본의 고베에서 2020년 10월 5~9일에 개최되며, 제72차 세계보건총회는 2021년 10월 4~8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의됨.